

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도다.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5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7월 7일) 2019년 8월 7일 수요일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훈민정음 창제, 신미 협력으로 가능"



영화 '나랏말싸미' 역사왜곡 논란 진상은?

1443년 세종 친제 밝힌 후
실록서 신미 등장이 '정설'
왕사 예우 · 병환 시 법회 등
세종 각별한 총애도 '사실'

세종 단독VS협력 논쟁 꾸준
'범어기원설' 창제에 배경엔
불교 학승 참여 유력 증거
정광 "신미, 모음11자 제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영화 〈나랏말싸미〉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개봉 직후 〈나랏말싸미〉는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논란으로 이어지며 곧바로 흥행에 직격탄을 맞았다.

결국 조철현 감독은 직접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역사 속에 감춰져 있던 신미라는 인물을 발굴해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으로 조명하려고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니다. 백성을 위해 처절하게 고민했던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면모를 그리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외 판권 수출 등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과 한글문화연대 성명 발표 등 역사왜곡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1443년 창제와 세종 친제

이번 〈나랏말싸미〉 역사왜곡 주장의 요지는 이렇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 25년(1443) 12월 30일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창제했는데 옛 글자를 모방했으며, 초 · 중 · 종성으로 나눠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룬다"고 기록됐다.

이후 실록에서 신미 대사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이로부터 3년 후인 1446년이다. 〈문종실록〉에 따르면 문종은 즉위 직후 신하들에게 선왕이 훈민정음이 반포되던 1446년 비로소 신미의 이름을 들었다고 나와 있다. 실제 〈세종실록〉에도 1446년 5월에 돼서야 신미 스님의 법명이 처음 나타난다. 즉, 정사(正史) 기록인 왕조실록에서는 신미가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했다는 직접적 기록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김무봉 동국대 국문과 교수는 "역사적 기록을 놓고 보면 신미 스님이 훈민정음 창제에 직접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훈민정음 반포 직후 유교경전이 아닌 불경 언해가 바로 이뤄졌다. 이를 주도한 신미 스님을 비롯한 학승들이 훈민정음의 보급과 정착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단독'인가 '팀-세종'인가

이 같은 논란은 훈민정음 창제설이 '단독'과 '협력'으로 나뉘기에 비롯된다. 정사에 기록된 '친제'는 세종 친제론에 가장 핵심적 근거이고 현재까지의 정설이다.

하지만, 협력설의 역사도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그 뿌리가 깊다. 실제 조선시대 성현은 〈용재총화〉에서 "세종께서 언문청을 설치해 언문을 만들었고, 이는 '범자(梵字)'를 본받았다"고 밝힌다. 음소문자의 원리와 계보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던 김만중 역시 〈서포만필〉에서 "범어는 초 · 중 · 종성으로 합해 글자를 이루니 생성이 무궁하다. 우리나라도 이로 말미암아 언문을 만들었다"고 기술했다.

현대에서도 협력설은 '범어기원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다. 대표적인 학자가 정광 고려대 국문과 명예교수다. 그는 한글 창제를 세종 단독이 아닌 세종의 형제 · 자녀들과 불가의 학승이 이뤄낸 '위대한 발명'으로 본다.

특히 불교에서 전해 오는 유구한 역사의 음성학이 한글 창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 정광 교수는 주목했다. 실제 그는 2015년에 발간한 연구서 〈한글의 발명〉에서 "고대 인도 음성학인 '비가라론'이 불경을 통해 동아시아에 유입되면서 서장 · 거란 · 파스파 문자 제정으로 이어졌고, 이 문자들은 한글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동아시아 표음문자의 정수"인 한글 창제에는 범어와 음성학에 능통한 학승들이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광 교수는 올해 증보한 저서 〈훈민정음의 사람들〉에서 "세종25년(1443) 12월 제정된 최초 언문은 27자로 중성 11자가 없었다. 모두 자음으로 이를 반절 혹은 언문 27자로 불렸다"면서 "그러다가 신미가 훈민정음 제정에 참여해 반절하자(反切下字)의 운을 중성과 종성으로 나누고 모음에 해당하는 중성 글자 11자를 따로 제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신미를 주목하는 이유

신미 스님을 역사 뒤편에서 전면으로 부각시킨 박해진 · 정찬주 작가 등은 훈민정음 제정 · 보급에 있어서 당대 학승 신미와 불교의 역할을 부정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신미 스님을 주인공으로 한 역사 소설 〈천강에 비친 달〉을 쓴 정찬주 작가는 논란 직후 본지에 발표한 기고문을 통해 "왕사제도가 사라진 시대에 세종은 신미 스님을 왕사로 예우하고 정음청 학사로 제수했다.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병환 중일 때 놀랍게도 스님이 침전에 들어 법문했다는 기록도 있다"면서 "영화 〈나랏말싸미〉가 그동안 한글 창제에 대한 상식을 벗어나 있어 논란은 당연하다. 다만, 역사적 진실은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 평전〉의 저자 박해진 작가는 본지와의 인터뷰서 훈민정음은 세종이 총괄 기획 · 편집을 맡고 신미는 전문편집인으로서 성음과 문자학의 핵심을 정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해진 작가는 신미가 세종으로부터 받은 두터운 대우를 정황적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 신미 스님의 동생 김수온의 문집 〈식우집〉 '복천사기'에는 세종이 신미의 이름을 듣고 불러 담소를 나눴다는 기록이 있으며, 세종의 왕비 소헌왕후 국상과 전경불사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도 신미였다.

신미에 대한 세종의 애정은 스님에게 내린 승직과 법호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세종은 신미를 판선교종(判禪敎宗)에 임명하고 승직과 법호를 내리려 했으나 신미가 병이 있어 내리지 못했다. 그러던 중 세종은 1450년 2월 17일 승하했다. 〈관련 특별기고 A3〉

A2면에 기사 계속



고사리손으로 모은 백만원력 승려요양원을 비롯해 한국불교 중흥 불사인 백만원력결집불사에 사상 처음으로 어린이 불자들도 참여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8월 1일 백중 5재를 맞아 5차 백만원력보시바라밀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계사 불교학교 어린이와 가족 10팀이 동참했다. 이날 어린이불자들은 주지 지현 스님과 함께 용돈을 모은 저금통을 백만원력결집 발우에 넣으며 불심을 키웠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한반도 평화 번영 100일 축원 올리겠다"

원행 스님, 文대통령과 오찬서… 8월 1일부터 시작

일본의 경제 보복과 러시아 영공 침해 등 국가적 위기 상황 타개와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해 불교계가 마음을 모은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소속 1만여 사찰은 8월 1일부터 100일 동안 '한반도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한 불교도 축원'을 부처님 전에 올리기 시작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한 불교도 축원'은 갈등과 경쟁, 질시와 반목의 암울한 기운을 걷어내고 화합과 상생,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기도다. 화쟁으로 화해하고 한마음으로 민족공동체 정신을 회복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축원 기도는 지난 7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진 불교계 대표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제안에서 비롯됐다.

당시 원행 스님은 "전국 1만여 사찰에서 종파를 초월해서 8월 1일부터 100일 동안 국가를 위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다"면서 "홍파 스님을 단장으로 일본에 대표단을 보낼 계획이다. 이번 사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행 스님은 국민통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 대통령에게 구하 스님의 선시 "산이 높아서 귀한 게 아니라 산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사람이 부유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덕이 있어서 귀하다(山高故不貴以有樹爲貴 人富而不貴以有德故爲貴)"를 인용해 조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대표 지도자들은 7월 26일 청와대 초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가졌다. 사진제공=청와대

이는 "국민을 믿고 의지하며 당당하면서도 담대하게 국난 극복을 위해 힘써 달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등 13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여름 휴가로 다음주 신문 쉽니다.

승려연수 인증과정

참선과 명상의 최고봉!

대한민국명상포럼

AI인공지능과 IT기업명상의 만남

참선 & 명상지도사 1급 과정



혜거 스님 | 금강선원 조실
이시형 박사 | 한국자연의학 연구원장
각산 스님 | 한국명상총협회장
마이크로소프트 킴킴 | 아키텍처/명상전문가
의정 스님 | 선원수좌회대표
정찬 스님 | 대흥사 유나
의성 스님 | 직지사 선원장
조효남 교수 | 전 정신과학회 학회장
정과 스님 | 대승사 한주
전현수 박사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종묵 스님 | 수도암선원 선현
마가 스님 | 자비명상 이사장
월호 스님 | 행불선원 선원장
금강 스님 | 미황사 주지
김열권 법사 | 위빠사나 붓다선원장
선업 스님 | 불교상담개발원장
안희영 교수 | 한국MBSR연구소장
대해 스님 | 대해사 국제선원장

일시: 8월 29일(목)~31일(토) 10시 | 동국대학교(인원 500명) | 문의: 1577-3696

주최 : 한국명상총협회 · 한국참선지도자협회 · BBS 불교방송 | 후원: 서울특별시 세계명상센터 | 명상포럼@ 검색